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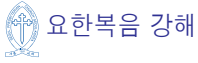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거듭난 사람 I

(요 1:13)

이종윤 원로목사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3)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보통 권세가 아니고 합법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 자녀권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1. 아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요 1:13)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라는 말이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가 헬라어로는 ‘우크 우데 우데’입니다. 영어로는 neither nor~nor입니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입니다. ‘아니오’가 세 번 나와 있습니다. 강한 부정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강조할 때 반복용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쉽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이 세 번씩이나 들어 있으니 굉장한 부정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1) 혈통으로 아니다

혈통이라는 말은 ‘하이마토네네’로 ‘하이마톤’(피)의 복수형입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중요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 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을 신봉한 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훌륭해도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2) 육정으로가 아니다

육정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말은 영어로 “will of the flesh”로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본능 혹은 신체적인 어떤 구성, 동물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혈통으로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마틴 루터도 요한 칼빈도 요한 웨슬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혈통으로라면 심지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육정’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이라는 말로 표현

해도 좋습니다. 육정으로 아니한다는 말은 인간적인 감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눈물이 흐르도록 감동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예화를 드시는데 심청이 얘기를 어찌나 슬프게 잘 하시는지 할머니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듣고는 은혜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때로 지식 작용을 무너뜨리고, 의지 작용을 흐리게 하고, 이성을 앞서 갑니다. 물론 감정이 전혀 없어도 안됩니다. 감정적인 것도 섞이되 이것이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이것이 생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에서 감정으로 연결되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 감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3)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다

사람의 뜻이란 의지적인 수양이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양을 많이 해서, 교육을 많이 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구원을 얻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아무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예수는 안 믿었지만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선한 것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은 적극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요즘에 이 적극적 사고를 교회에서 무척 강조합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어디에 있느냐, 할 수 없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항상 적극적인 사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만 들어서 신학생들이 졸업하면 ‘나도 세계적인 목사가 될 수 있다. 나도 적극적으로 사고하자’해서 무작정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교인이 모이겠습니까? 성경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잘 풀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교인이 모일텐데 그렇지 못하니 몇 달 해 보다가 이제는 교회를 팔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가 잘못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한다는 말은 곧 제 힘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수양과 노력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교육학 학자들이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를 따집니다만 성경은 아담 이후의 인간은 여지없이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여지없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9 여름성경학교·수련회 마친다

청년1·2부 : 15일(목)-17일(토) 아가페타운

에바다부 : 15일(목) 서울교회 / 장로수련회 : 15일(목) 서울교회

소망부 수련회 : 31일(토) 베델하우스

지난 7월 6일 사랑부를 시작으로 그간 진행되었던 2019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오는 8월 31일(토) 소망부 수련회로 끝을 맺는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간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은혜롭게 진행된 것과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여 힘차게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기 바란다.

부서	일정	장소	주제	교역자
청년1부	8월 15일(목)-17일(토)	아가페타운	순전히 만나게 하소서 (창 24:12)	심우진 목사
청년2부				
에바다부	8월 15일(목)	서울교회	도우시는 하나님 (시 121:1-2)	서명철 목사
소망부	8월 31일(토)	베델하우스	기도하는 소망부	전재홍 목사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7월 28일 주간)

안인호·이명신 조정옥·조병철 농어촌전도대 정복순 최죽희 백승갑 안흥희 윤요섭·안재희 송인권 무 명

(8월 4일 주간)

박동식·유하영 김찬웅 김진숙 송재현·선순례 문동진·김은정 이미경 박동우·백승경 이선희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8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8월 11일: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
- 8월 18일: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 8월 25일: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

- 예약상담 :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 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 12(토) 오후 1시



청년부수련회 초대

순전히 만나게 하소서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창 24:12)



정성우
(청년부 회장)

2019년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8/15(목)-17(토)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됩니다.

전에 들은 설교말씀 중에 현대의 시대는 '부흥의 시기가 아닌 버티는 시대' 라는 말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현 시대의 문화가 정체성을 잡기 어렵게 만드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요즘들어 더욱 깊게 묵상하게 되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년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문했을때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관 해주실 문제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껏 교육받은 대로 예수님 한분 붙잡는 연습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부 임원단은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일에 충실하고 청년부원들은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서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각 지체들이 연합하고 조화를 이룬다면 더욱 튼튼한 청년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함께 하나 될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부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수련회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청년부에 해당하는 또래(00년생~80년생)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B.M.W. 운동

광복절 74주년 기념 특별기고



해방의 기쁨, 자유 가치

안승민 집사 (9교구)

일본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 올해로 74주년이 됩니다. 사회적 혼란과 문화적 방종이 가득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눈물 가득 찬 호소를 떠올리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한국 현대사에 두 가지 극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확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자유의 본질적 의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하나는 해방과 독립이 주는 기쁨의 자유이고, 또 하나는 자유를 택함 가져다주는 결과의 자유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두 가지 기쁨 모두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 의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사상적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 개개인을 설득시키는 자유주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은 우매하여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고 종속시켜야 한다고 믿는 전체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산당 선언’으로 유명한 카를 마르크스는 역사를 경제적 구조의 모순에서 찾아 계급투쟁을 역설하며 역사를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이해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프롤레타리아(무산자)혁명을 통해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도 과도기적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의 독특한 통찰력은 예리했지만 그의 예언은 틀렸거나 빗나갔습니다.

계급투쟁이 아니라 무언가 알고 싶은 욕망, 다시 말해서 지식에 대한 탐구욕에서 역사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자본주의의 마지막에서 공산주의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시도된 적이 없는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채택되었음은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산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을 철저히 국가에 종속시키기 때문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인권은 말살되고 모든 자유가 통제되어 종교적 자유마저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레닌과 스탈린이 그랬고 지금 북한의 3대 세습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이며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는 일일뿐더러 크리스찬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믿었던 루트비히 포이어



1945년 8월 15일,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히로히토 일왕의 항복선언은 일본의 패망을 알리고 조선이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일본 패망을 알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바흐에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더 나아가 “모든 것은 물질”이라는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전개시키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란 생각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은 바로 무신론과 결부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엔 하나님의 인권이란 개념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인권이 그토록 소중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유가 소중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비교 분석하면서 미국혁명은 “자유”라는 가치로 기독교적 유산을 받아들여 비전을 제시하며 성공했다고 보는 반면, 프랑스혁명은 “해방”을 가치로 가치의 전복을 목표로 무신론적이고 무질서를 양산한 실패한 혁명이라고 평가했는데, 그것은 두 혁명이 낳은 결과를 봤을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광복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전자가 “나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랑하고 수호한다”라면, 후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위협하고 무시하는 무신론적 인본주의 사상에는 크리스찬의 양심을 걸고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태도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 속에 흔들릴 수 없는 크리스찬의 신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는 자유, 정의, 인권 그 모든 것이 기독교적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맛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크리스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기도 가운데 이 혼돈의 시대를 영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기를 광복절 74주년을 즈음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 봅니다.



더운 날씨에도 성도들에게 더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고자 매주 메뉴를 고민하고 토요일마다 베델하우스에서 음식을 만드시고 주일마다 배식, 잔반처리, 설거지를 해 주시는 권사회, 선교회, 전도회, 숨은 일꾼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뉴는 무엇일까 기대하게 해 주시고 식사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알려 주심도 감사합니다!

트렁크 잡화점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앞마당에 작은 트렁크 잡화점이 열립니다. 이 신기한 트렁크 잡화점 판매 품목은 주인장 마음대로입니다. 매주 새로운 과자가 들어오고 초콜릿, 사탕, 캐러멜, 젤리 등등 주전부리 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굳건질거리만 있나요?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도 있었고 더운 여름에는 작은 물총이, 영하의 추운 날에는 핫팩도 있었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한 선물이,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를 위한 작은 장난감도 있었습니

다. 그러면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무료입니다. 트렁크 잡화점 주인장은 교회가 혼란해지고 시끄러워지자 마음에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고자 2017년부터 자비로 이 작은 트렁크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교회 앞마당에 있는 이 작은 트렁크 잡화점에 들러보세요. 어른들에게는 미소를, 아이들에게는 작은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등 정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콩나물 열무 비빔밥
짜리고추 메추리알 장조림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장로수련회(8.15), 에바다부(8.15), 청년1·2부(8.15-17) 여름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안보, 외교적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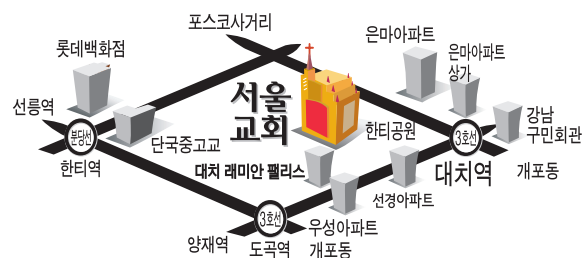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8월12일	월	렘 13-16		삼상 12-17	
8월13일	화	렘 17-20		삼상 18-23	
8월14일	수	렘 21-23		삼상 24-31	
8월15일	목	렘 24-27		삼하 1-6	
8월16일	금	렘 28-31		삼하 7-13	
8월17일	토	렘 32-34		삼하 14-19	
8월18일	주일	렘 35-38		삼하 20-24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